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Canada Non Tariff Barriers Issue

캐나다,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지침 업데이트 공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잔류물질, 식품으로 이동하여 식품 안전 문제 유발 가능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식품총국 산하의 화학안전실(BCS)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이번 업데이트 지침은 2011년 발표된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품 접촉 제품이 가진 가장 큰 잠재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적 재활용 프로세스(mechanical recycling process)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재활용 관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업데이트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급 원료(재활용 대상 물질)의 출처, 사용 제한, 화학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재활용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됨. 이 중 '사용 제한' 사항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으므로, 캐나다로 포장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 시 이를 확인하여 포장재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 사항

[원인]

플라스틱은 투과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된 물질에는 잔류 화학물질이 남아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음. 따라서, 2차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물질 사용 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정 물질이 공급 원료(재활용 대상 물질)에 존재할 경우에 해당함

- 비(非)식품 등급 첨가물 : 재활용 원료로 사용된 비식품 용기의 착색제, 자외선 안정제, 정전기 방지제, 충격 완화제 등. 2차 재활용 공정은 모든 첨가제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식품 접촉 용기만 재처리하는 분류 절차를 개발하거나 효과적인 차단막을 통해 해당 첨가물이 식품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통해 개선 가능

- **식품 등급 첨가물** : 특정 식품 포장 용도로 사용된 공급 원료의 식품 등급 첨가물, 식품 등급 첨가제만 포함된 (*)PCR 원료라 하더라도, 식품의 유형 또는 완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단일 특성 용기(PET 물병)만 재처리하거나, 최종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조건(상온에서 사용) 또는 식품 유형(건조 식품과 함께 사용)을 제한하여 개선 가능
 (*PCR(Post consumer recycled)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후 버린 플라스틱을 선별, 수거하여 재활용한 원료를 의미함)
- **외부 화학적 오염 물질(용기 표면에 존재)** : 비식품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가정용 제품(세제, 크림, 샴푸 등), 최종 사용자가 식품 용기에 보관했을 수 있는 살충제 또는 자동차 화학물질(모터 오일 등)등 재생된 플라스틱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는 재활용 화학물질

[사용 제한 사항]

재활용업체, 포장 제조업체 및 식품 포장업체는 다음의 ‘사용 제한’ 방안을 적용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식품에 잠재적인 화학 오염물질 및 첨가제가 옮겨가는 것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음

1. **식품 유형 제한**: 예) 건조식품, 자연적인 껍질이 있는 식품, 생과일 및 채소만 사용
2.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조건 제한**: 예) 실온 이하에서 사용하거나 식품 접촉 기간 제한
3. 1차 포장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2차 포장으로 다시 분리하는 것을 제한
4. **효과적인 기능성 보호 장벽 사용** : 다중 포장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는 비식품 접촉 층으로 사용하고, 버진 플라스틱(virgin plastic) 또는 알루미늄 등의 적절한 물질을 식품과 분리하는 효과적인 장벽으로 사용하여, 식품에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제한

출처

Government of Canada, Guidelines for using recycled plastics in food packaging: Considerations for secondary recycling processes, 2023.02.21